| 현불 논단 |

선정적 자살 보도 'STOP'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유명 희극인, 모친과 함께 자살
유가족 "유서공개 않겠다" 입장
한 언론 '단독' 달고 내용공개해

선정주의 유혹에 빠진 언론행태
자살 보도량, 모방 자살에 영향

韓 '자살 보도 권고기준' 정립
고인 인격 · 유가족 존중 권고
죽음에 대한 언론태도 신중을

최근 한 유명 희극인이 모친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유가족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가 유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 논란이 되면서 언론의 윤리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유가족의 입장에 반하는 보도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책임 소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언론사의 유서 내용 보도는 비난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의 윤리 실천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잘못된 자살보도가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언론인의 자질, 언론의 품격, 언론이 처한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으로 언론이 지양해야 할 '선정주의'의 유혹을 들 수 있다.

'선정주의'는 언론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극적이거나 과장적인 보도를 하는 일련의 행태를 일컫는다. 유명인의 자살 이슈는 선정적 보도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언론의 자살보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학자 필립스(Philips)는 1948년부터 1968년까지의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자살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언론을 통한 자살의 노출량이 모방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런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자살 보도량의 증가와 노출이 실제 자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공동으로 언론의 바람직한 자살보도를 위한 실행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언론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으며,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 것과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기사 보도량이 증가할 경우 1주일 내로 자살 검색어의 검색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한 자살기사의 보도량 뿐만 아니라 자살의 방법, 장소, 이유 등의 언급량이 관련 검색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권고기준과 보도준칙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실행의지가 중요함을 연구는 확인해주고 있다.

언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자살보도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가치와 역할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 예컨대 여러 이유에서 사회 공동체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단순히 금기시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언론윤리의 준수와 알권리 충족 책무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은 언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립감, 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죽음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이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파파게노 효과'에 언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과 거울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그 범위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각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이 생겨납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버린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의 '무(無, 없다)'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성을 말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근본 마음은 '대원경지(大圓鏡智, 크고 둥근 거울)'라고 합니다. 거울과 같은 지혜라는 말 입니다.

이 거울에는 더함도 감함도 꾸밈도 있지 않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텅 비어있는 허심(虛心)이요, 청정심(淸淨心)이요, 무심(無心)이지요. 꽃이 다가오면 꽃을 비추고 새가 오면 새를 비추고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아무 분별도 거기에 더하는 바가 없습니다. 앞서 다가오면 비추고, 떠나면 사라져 원래의 무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청정무구하고 사로잡히는 바가 없는 자유로운 마음, 이것을 본래 나의 마음자리요 평정심이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거울 앞에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비추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것도, 아주 작은 것도 거울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거울 앞에 무엇이 있으면 다른 것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비추었던 물건이 떠나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생불멸(不生不滅,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닌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 꽃이 비쳤다고 해서 더 예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개똥이 비쳤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불구부정(不垢不淨,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이 비쳤다고 해서 거울이 더 불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사라졌다고 해서 거울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두고 '부증불감(不增不感, 더함도 감함도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불생불멸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거울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짓더라도 본성까지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행복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전국비구니회에 거는 기대

6000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제12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13일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주축으로 출범한 12대 전국비구니회는 소통과 실천을 모토 삼아 "일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공약실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올해였지만,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타까운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되짚어 보니 성과가 적지 않다. 우선 '일하는 전국비구니회'에 최적화 된 조직체계가 눈길을 끈다. 집행부부터 전국지회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새롭게 신설한 분야별 제위원회, 부설기관인 연구소 신설 등 전문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포진돼 있다.

미흡했던 회칙을 제개정하고 전국비구니회장 선출 등 선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시스템의 안착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여전히 산적한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비구니 승가공동체를 통한 복지체계 구축이며 그 중에서도 최우선은 주거 안정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함께 수행하고 포교하는 승가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불교계 전체의 몫이다. 비구니 승가의 안정은 비구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 등 전국비구니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전국비구니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다시 방역의 고삐 붙잡아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11월 26일에만 확진자가 538명이 늘었다. 6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 발생 500명대로 다시 접어들었다.

앞서 11월 2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며, 불교계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동안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사찰은 법회 · 행사에 수용인원 20% 이내만 참여시켜야 하며, 개인 간격은 2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모임은 중단됐고, 신도와 외부인들의 공양도 금지됐다.

사찰 상주대중들의 일상 방역 지침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상주대중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중밀접시설과 고위험시설의 출입도 안 된다.

종무행정과 불교계 행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불기2564(2020)년 동안거 포살법회는 결계신고로 대체되며, 승려분한신고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불교계 연말 시상식들도 대부분 수상자만 참여하는 등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모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풍경들이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교계는 선제적 방역으로 확진자 0명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2건의 사찰 발(發) 확진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일본 종단과 유사 불교 교당으로 확인됐다.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지금, 불교계는 다시 방역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방역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모자람이 없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현 시대에서 방역은 '자리이타(自利利他)' 그 자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